

순간접착제, 안전성 문제 심각

순간접착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일반 접착제보다 빨리 마르고 접착력이 뛰어나며 금속·고무·플라스틱·나무 등 다양한 재질에 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보편화돼 있어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.

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순간접착제 관련 안전사고는 2007년 27건, 2008년 64건, 2009년 95건, 2010년 1-8월 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순간접착제를 사용할 때 내용물이 눈에 튀거나 손에 묻어 손가락이 붙거나 화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접수된 관련 안전사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, 내용물이 눈에 튀는 사고가 184건(81.4%)으로 가장 많았다. 사용 도중 떨어뜨려 신체나 눈에 튀는 등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152건(67.3%)으로 가장 많았고, 뚜껑을 개봉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30건(13.3%), 안약으로 오인하여 사용한 사고도 18건으로 8.0%에 달했다.

순간접착제는 10-30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붙게 하는 합성수지 접착제로 주성분은 Cyanoacrylate이며 공기와 접촉하면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중합반응을 일으켜 접착된다.

<화학저널 2010/10/11>